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결성 30주년 및 동아투위 30년사 '자유언론' 출판기념회

- 주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 일시, 장소 : 2005년 3월 17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자유언론의 대명사 동아투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함 세 응

한결같은 마음으로 30년을 살아 온 동아투위 기자들께 오늘 우리는 언론개혁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모아 깊은 감회와 함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1974년 10월 24일은 민족과 역사 앞에 진실만을 전하고 기록하겠다는 굳은 다짐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1975년 3월 8일, 그리고 1975년 3월 17일은 우리에게서는 진정, 비판과 좌절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준 '자유언론 생매장'의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강요된 침묵과 왜곡된 현실을 거부하며 탄압과 폭력에 정면으로 맞선 동아투위 위원들의 용기와 희생은 참으로 우리의 희망이며 자랑이었습니다. 오직 자유언론을 위하여 자신의 온 생애와 젊음을 불태운 동아투위는 바로 우리의 힘이며 등불이었습니다.

아렇게 30년, 동아투위는 우리에게 자유와 민주라는 선물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언론의 참 가치를 깨달아 아직도 우리 국민을 속이고 있는 조선과 동아, 거짓과 술수로 우리의 역사를 왜곡, 기록하고 있는 이 패악이야말로 동아투위의 양심으로 파아내고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을사늑약 100주년, 해방 60주년, 동아투위와 인혁당 관계자 희생 30주년, 광주민중항쟁과 김재규부장 희생 25주년 그리고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올해 우리는 이 모든 의미를 가슴에 되새기며 더욱 분발하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사실 동아투위 기자들은 편집실에서 쫓겨났지만 길거리에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정보부 지하실과 감옥 등 곳곳에서 진실을 전하며 온 나라를 편집실로 승화시킨 영원한 기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아투위의 기자들이 있는 바로 그 곳이 언론의 현장, 진실의 현장이었습니다.

뜻 깊은 오늘 우리는 송진호 선생님, 안종필 선생님 등을 비롯해 자유민주화를 위해 온전히 자신을 바치신 전배, 동지들과 익명의 모든 희생자들을 기리며 첫 마음을 되새깁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지난날의 고통과 염원을 오늘 이 자리에서 재현하여 더욱 알찬 창조적 미래를 이루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30년 전 피눈물 났던 수난이 오늘 이 자리에서 생명과 기쁨, 부활이 되어 자유 언론의 뿌리가 되었음을 확인하며 동아투위의 아름다움을 길이 기억합니다.

동아투위는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이렇게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동아투위의 전승과 기쁨을 노래하며 축원합니다.

2005년 3월 17일